

한국 전통가정의 생활문화

이 규 태 논설고문(조선일보)

전통생활 문화를 보는 많은 시각 가운데 의식주를 특성지우는 구조적 차원에서 조명을 해보고자한다. 전통 식생활의 비교문화 차원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첫째 국물이 많다는 습성(濕性)을 들 수 있다.

음식이란 말에서 암시 받을 수 있듯이 먹는(食) 고체보다 마시는 액체가 선행될 만큼 밥상에 오르는 일상식의 80%에서는 국물이 들어 있다. 따라서 숟가락이 주 식구(食具)가 돼 있는 유일한 식문화요 식기가 서양처럼 평면인 접시가 아니라 입체적인 원통으로 돼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물없이 밥을 못 먹고 국에다 밥을 만 탕문화가 한국처럼 다양하게 발달한 나라도 없다. 이 습성 음식의 발달요인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동성 민족의 음식은 휴대해야하기에 습성을 제거하는 쪽으로 발달하고 따라서 고체이기에 맛이 고정돼 있어 변화를 가할 수 없지만 정착해 살아온 조상들은 그 변화를 다양하게 하고자 물을 가미하게 됐을 것이다. 둘째로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위해 부풀리는데 물은 적격이다. 잦았던 흉년이면 국난을 이겨내는 가난의 슬기로 습성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신인융합(神人融合)이나 일심동체(一心同體)를 다지는 수단으로 공식(共食)하는데 들어맞는 탕문화가 발달했음직하다.

둘째 따습게 해서 먹는다.

셋째 발효음식이 발달했다.

서양집이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구조로 돼있다면 한국집은 외부와 친화구조로 돼 있다는데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곧 집과 외부공간과 연결구조로 돼 있다. 첫째 한국집은 자연친화적인 구조다. 초가삼칸에서 99칸 고대왕실에 이르기까지 앞 뒤 문이나 창을 열면 통풍공간이 형성된다는 구조적 공동성이 그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밤새워 소음을 내는 문풍지를 문짝하나 맞추지 못한다고 비하하고, 마루틈새에 간격이 생긴 것을 마루판자하나 맞추지 못하는 조악으로 지탄하지만

문풍지는 온돌열로 포화하기 쉬운 실내공기의 환기장치요, 청마루 틈은 태평양 고기압이 와 지배하는 여름의 무더위와 습기를 쫓는 환풍구인 것이다.

둘째 집들레에 마루는 인간 친화공간이다.

셋째 쾌적공간인 으스름 창출구조로 돼있다.

옷이 몸에 붙으면 복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한복의 비교문화적 특성으로 여유구조를 들 수 있다. 서양옷들이 단추나 후크 등으로 조여대는 결박구조로 여유를 극소화한 것과 고름끈이나 바지끈으로 느슨하게 맺어 두기만 하는 여유를 극대화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 옷으로 3년 입히는 것이 관례가 돼 있었듯이 자라더라도 오래 입게 하고자 여유를 두었다. 곧 길삼이라는 과노동과 빈곤이 여유를 창출했다 할 수 있다. 또한 흥부 형제들처럼 형제가 더불어 입게 하기위해 여유를 두고 옷물림이라하여 아버지 옷을 맏아들이 그리고 둘째, 셋째로 물려 입음으로써 우애와 가족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옷이 이용되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 주로 손을 쓰는 육체노동을 해야하는 한국의 노동구조에 부합하여 몸을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 여유를 두었음직하다.

둘째 서양옷이 답는 옷이라면 한국 옷을 싸는 옷이다.

셋째 치마는 옷만이 아니다.